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노산’과 ‘가고파’

이 우 걸
시조시인·한국시조시인협회장

노산 이은상 선생은 현대시조 개척의 선구자다. 특히 1932년 발표된 ‘가고파’는 김동진이 작곡하여 고향이 어디에 있건 향수에 젖어들면 누구나 부르곤 하는 국민 애창가곡이다. 이 노래가 발표된 지 81년만인 올해 허인구 마산역장은 문화적 관문으로 역의 분위기를 가꾸고자 하는 의욕에서 남마산로타리클럽과 힘을 모아 ‘가고파’ 시비를 세웠다.

그러나 민주성지 마산을 부르짖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시비 존폐문제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차제에 ‘가고파’ 시비 존립 의견을 지지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갈등 종식에 조그마한 지혜를 보태고 싶다.

첫째 ‘가고파’는 작가의 생애보다 작품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산의 관문인 마산역에 ‘가고파’ 시비를 세운 뜻은 정감 있고, 아름다운 마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노산의 생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전국민이 알고 함께 부를 수 있고, 미항 마산의 모습을 잘 알릴 수 있는 시로 ‘가고파’만한 작품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둘째 노산은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때 ‘친일혐의’ 운운하면서 워낙 많이 언론에 오르내려서 지금도 노산을 친일인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2009년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은상은 올려있지 않다.

1903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타계한 노산의 일생을 살펴볼 때 일제통치 36년이 그대로 그의 생애를 관통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인사는커녕 오히려 일본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애국투사였다.

셋째 노산은 권력에 연연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노산의 중요 프로필을 보면 대학교수, 언론사 간부, 문화단체 회장을 지낸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시조시인 협회장, 한국산악회 회장,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예술원 회원, 이충무공 기념사업회 회장 등 정치권력과는 먼 거리에 있는 단체에서 봉사했다.

그가 권력에 집착했다면 장관이나 총리, 국회의장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넷째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대체로 옹호하는 입장에 섰지만, 그의 일관된 진심은 민족사랑, 조국사랑이 바탕이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노산은 일제하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다. 한일합방 때 여섯 살이었고, 광양유치장에서 해방을 맞을 때가 마흔한 살이었다. 조국을 잃고, 젊은 날을 보낸 그에게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산문, 그의 시조 편편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펼치며 문필생활을 영위했다. 그가 친정부적이었고, 독재 옹호에 기여했다는 비판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노산의 편에서 바라본다면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3·15에 대한 노산의 견해를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마산 일부 시민단체가 노산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3·15에 대한 노산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다. 그 불만의 근거가 되는 기록은 1960년 4월 15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마산 사건의 수습책’이란 제목의 기사다.

여기에는 6개 항목의 설문에 대한 국가원로들의 답변이 실려 있다. 이은상은 다른 원로들과 다른 태도에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다른 태도란 가장 적극적인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다. 가령 어떤 원로는 답변을 회피했고, 어떤 원로는 극히 단순하게 답했다.

고향을 생각하는 노산은 사실상 정부의 총사퇴를 주장하면서도 고향 마산사람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3·15가 민주주의 역사의 발자취로 인정받고, 교과서에까지 기록된 지금 우리가 보는 3·15와는 다르게 그 당시의 혼란스런 정국 속에서의 노산의 심정을 배려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산은 조국과 고향 사랑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시조의 가락에 담아낸 시인이라는 점이다. ‘가고파’, ‘가윗날에’, ‘옛동산에 올라’가 고향사랑의 노래라면 ‘길이 끝났네’, ‘고지가 바로 저긴데’, ‘기원’ 등은 조국사랑의 노래다. 수많은 강연과 산문 집필을 통해 청년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었고, 스스로 국토의 구석구석을 밟으며 노래로서 의미를 새겨 놓았다.

그러나 노산인들 한 인간으로서 어찌 결함이 없었겠는가. 우리가 지금 ‘가고파’ 시비를 지키려함은 완전한 노산의 생애를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고향을 사랑하고, 각박한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시정(詩情)에 젖어가며 오늘의 고달픔을 이겨나가자는 데 있다. 이런 소중한 의미라면 돌에도 마음에도 새겨 간직함이 옳지 않을까 한다.

의료칼럼

주부들이여, 명절증후군을 날려버려라!

강 채 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한가위가 다가온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명절 추석. 하지만 올 추석에도 ‘명절증후군’을 미리 걱정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명절 전후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포함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명절에 힘든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들에게 생긴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답답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 잠을 설치게 되고, 명절이 끝난 후에는 근육통 같은 육체적 피로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달력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리는 명절증후군, 과연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명절 동안 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정리해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한다. 또 간소화할 수 있는 일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평균 다섯 번 차리던 밥상을 세 번 차리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거나 새로운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뷔페 방식을 접목하는 ‘퓨전식 상차림’도 적용해 본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남성들에게도 역할을 제시해 준다.

명절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설거지다. 쉴 새 없이 나오는 수많은 그릇들을 씻다 보면 허리와 등이 뻐근해진다. 높이 10~15㎝의 발판을 마련해 발을 번갈아 가면서 올려놓고 설거지를 하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허리를 앞으로 뒤로 좌우로 구부리고 펴주어야 한다. 만약 허리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다음날 온찜질을 해주고 따뜻한 계피차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식을 만들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음식을 만드는 중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전을 부치게 되면 목과 허리에 모두 무리가 가게 되므로 분담한 일을 바꿔 하거나 자주 쉬어주는 것이 좋다.

뭉친 근육과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데는 두피 마사지가 효과가 있다. 두피를 마사지할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아래쪽(지문)이 두피에 닿도록 세워서 한다. 날카로운 손톱이 두피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 두피 마사지는 앉아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는 것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효과가 크다. 건성 두피의 경우 매일 마사지하고, 지성 두피는 손과 두피가 마찰돼 나오는 유분이 두피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웃음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완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 진통효과가 큰 엔도르핀을 생성시키고 근육을 한꺼번에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켜 준다. 개그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날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생하는 주부에게는 남편 등 가족의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 보상의 표현으로 선물을 하거나 여행가기 또는 명절 전 후에 집안일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잠시라도 적절한 휴식을 취해서 육체적 피로를 줄이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초래되는 근육 긴장의 이완을 위해 심호흡을 하거나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명절을 보내고 나서도 어깨나 허리 등의 근육통이 남아 있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울화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로 인해 막힌 기혈순환을 정상화시켜 주면 만성적인 통증이나 화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고

재능의 꽃 피울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어 주세요

오 세 원
숭의중 2년

“청소년의 꿈, 꽃이 핀다”

원대한 꿈을 품고 자라나는 새싹인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듯하다. 파릇파릇한 새싹에 교육이라는 물과 사랑이라는 햇빛이 안성맞춤의 환경을 만들어 줄기가 자라고 잎이 돋아 송이송이 꽃이 핀다. 꽃들은 저마다 모양도 색깔도 향기도 달라 각양각색의 꽃들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꽃밭의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자라나는 새싹에 적절한 토양과 환경을 뒷받침해주기보다는 어른들의 성급한 욕심으로 과도한 농약을 뿌리고 화학비료를 잔뜩 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는 마치 능력 있는 자, 스펙을 갖춘 자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다. 동기와 과정은 외면한 채 능력과 스펙을 증명받기 위해 결과적 산물인 성적표만을 요구하고 있다. 신문에서 읽은 바로는 스펙을 쌓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스펙을 위해 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 학부모의 허리가 휠 정도란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심적 부담은 오죽하겠는가.

명문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알아주는 직장에 취업해 유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사회적·현실적 요구에 묻혀 정작 자신의 진정한 꿈과 재능을 펼칠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는 아쉬움과 그로 인해 학생들이 겪어야할 부담과 스트레스가 안타까울 뿐이다.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을 잡아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강박관념이 전염병처럼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이되고 있고, 참교육을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푸르른 새싹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멍들고 시들어버리는 현실이 무서울 정도다.

사교육 과열에 부모님의 양 볼은 더욱 야위어 가고 자식들은 방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학원을 전전해야 한다. 학원 한두 개는 기본이다. 주말에도 편히 쉴 수가 없다. 아마도 부모님들은 남들이 모두 다니는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신가 보다.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의 성화에 떠밀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흥미를 찾지 못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기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서정과 감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사교육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발표,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수 없이 언급되고 있지만 과연 그날이 오기나 하련지 궁금하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주도학습이 단지 공부하는 방법만의 의미가 아니라 어른이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능력과도 직결된다 말씀하시며 스스로의 학습을 강조하신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집에서 동영상을 보며 나름 열심히 했다. 하지만 학원에 다니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난해한 시험문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최소한의 범위로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께서 느끼신 허탈감이 작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에 올인 해야 하지만 정작 대학에 진학해서는 공부를 게을리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사설을 본 적이 있다. 입학은 쉬워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졸업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고 있었다. 특기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구나 똑같은 과목에 매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정작 깊은 학문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되 중고시절부터라도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몇 년 전 전문계 로봇 특기생이 재능을 인정받아 특수대학을 진학하였지만 수학 영어 등 기초학문의 실력 부진으로 적응하지 못하다 결국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너무나 가슴 아팠다.

악기나 그림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권하고 매진할 수 있는 풍토, 돈이나 학벌이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과정과 열정 자체를 인정하고 갈채를 보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진정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다독여주고 이끌어주는 성숙한 우리나라를 꿈꿔본다. 청소년은 나라의 동량이니 타고난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으며 멀지 않은 날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활짝 핀 꽃밭이 되리라 확신한다.

초등학교 인근에 성범죄자 거주 못하게 해야

최근에 초등학교 교내는 물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부근에서 부쩍 성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며칠 전에는 부산의 모 대학 기숙사에까지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걱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70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반경 1㎞ 내에 무려 352명이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참 기막히고 황당한 일이다.

70%가 넘는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부근에 살고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일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는 거주지 주변에서 대상을 물색할 것이다. 또한 범행대상을 접촉하기 쉬운 직업을 고른다고 한다.

스위스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가차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하한을 징역 25년으로 높혔다고 한다. 물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한다.

그 반면 우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처벌이 미약해서가 아닐까.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염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좌혜경·광주시 동구 산수동

社 說

전두환씨 이제 5·18 학살 진상 밝혀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이다. 그러나 추징금이 환수되더라도 그동안 ‘전재산 29만 원’식 버티기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의 법집행 능력과 의지를 조롱거리로 만들어온 전씨의 야만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추징금 납부 발표는 검찰 수사와 여론에 떠밀린 측면이 강하고, 20여년 전 그 측근이나 일가에게 빼돌린 돈으로 증식된 재산이 1조 원 안팎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탈세와 국외 재산 도피 등은 추징금과 별개의 사안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뒤늦은 사과로 불법까지 덮을 수는 없다. 추징금 납부는 역사적 과오를 씻는 마지막이 아니라 5·18 진상 규명과 5공(共) 청산 등을 밝혀가는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은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죽음과 피로써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희생자 수와 발포 명령자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등 미완(未完)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과 광주시민은 이념 논쟁의 굴레 속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5·18 당시 시민 학살의 원흉으로 불린 전두환은 이제 스스로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무력진압과 발포 명령, 정확한 사망자 수를 발표하고, 광주시민과 5·18 영령 및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한다. 추징금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차제에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직접 조사해 5·18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이자 쓰러진 법치와 사회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日 수입산 방사능 검사장비 고작 1대라니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음식점과 상가 가운데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 드물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해줄 검사가 사실상 광주·전남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광주에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정밀검사하는데 투입될 수 있는 감마선핵종분석기가 광주 식약청에 1대뿐이다. 전남도에는 그마저도 없다고 한다. 감마선핵종분석기는 대당 가격이 2억원에 이르는 장비로 식품이나 물, 토양을 오염시킨 방사능의 종류와 양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식품 샘플은 고작 3개에 불과하다. 매일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대부분은 식약청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광주시도 방사능 오염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감마선핵종분석기 1대를 자체적으로 구입하기로 했지만 올해 예산이 없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재앙이다. 일본식품 수입을 계속하는 이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식품안전청이 나서 일본수산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말뿐인 대응으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느슨한 검역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서둘러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하는 것은 방사능 진단장비를 대폭 늘리는 일이다. 당장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광주·전남 등 지자체에 진단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삶의 기본요소인 먹거리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희망 메시지

#국내 청소년 자살률 증가 속도가 성인보다 빠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최근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조사한 사망원인에 따르면 10~19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지수가 지난 2001년 3.19명에서 지난 2011년 5.58명으로 무려 5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64세 성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6.96명에서 33.58명으로 50.5% 늘었다.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청소년층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급증 추세다. OECD 31개 국 아동청소년 10~24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6.4명에서 9.4명으로 47%나 급등했다. 이들은 주로 성적 및 진학문제, 가정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명 중 3명이 열심히 일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향후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63명(75.2%)이 낮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비관적이다. 30대 응답자의 무려 80.2%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답했다. 60대 이상은 63.3%, 20대는 70.5%였다. 계층 하락 이유로 생활비 부담 증가, 소득 감소, 과도한 부채, 기회 불공평 등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은 자살을 선택하고, 청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최근 불의의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가 새 삶을 찾은 작가 이지선의 기적의 인생 스토리가 방송을 탔다. 그녀는 사고 후 여덟 손가락을 절단하고, 40여 차례의 대수술을 받는 등 생사를 오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지만 매사에 고마움을 느끼며 산다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그녀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답했다.

이지선씨의 희망 메시지가 자살과 비관 속에 사는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